

2020년 10월 1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추가 부양책 기대 높이며 하락폭 축소 므누신, “민주당과 코로나 검사 비용 정책 합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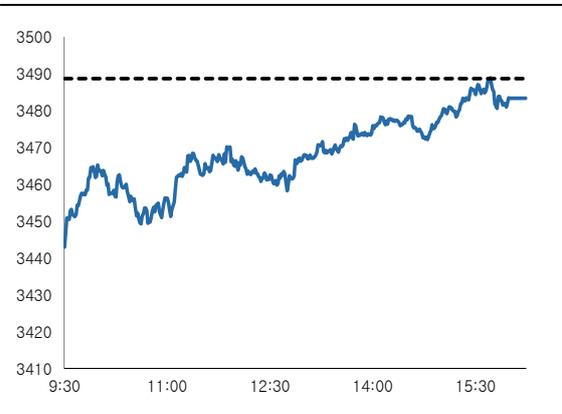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2차 팬더믹 우려 속 부양 기대 유입

미 증시는 부진한 고용지표 및 글로벌 코로나 재 확산 가능성이 부각되자 1% 내외 하락 출발. 그러나 므누신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과 관련 긍정적인 발언이 알려진 이후 낙폭 축소. 여기에 라가르드 ECB 총재의 부양책 관련 발언도 낙폭 축소 요인. 더불어 장 마감 앞두고 장중 낙폭 키웠던 대형 기술주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 축소된 점도 긍정적(다우 -0.07%, 나스닥 -0.47%, S&P500 -0.15%, 러셀 2000 +1.06%)

미 증시는 코로나 및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에 기반해 변화. 코로나 재 확산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위축. 유럽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독일, 영국, 프랑스 특히 이탈리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런 가운데 각국은 경제 봉쇄를 확대하며 경기 위축 우려를 높임. 미국 또한 7 일 평균 하루 5 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날도 6 만 건 가까이 기록하고 트럼프 가족의 확진 사례가 발표된 점도 부정적. 여기에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8 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89.8 만 건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불안도 부담. 이 결과 주식 시장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장중 매물이 출회되는 등 차익 욕구 확산되기도 했음

한편, 장중 낙폭이 축소되었는데 대선 전까지 추가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므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 검사 비용 관련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있다고 발표해 부양책 합의 기대를 다시 높임. 트럼프 대통령 또한 1 조 8 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을 지시 했다고 언급을 한 점도 긍정적. 물론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부양책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난항은 이어갔으나 트럼프 등 미 행정부의 발표는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여기에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의 코로나 재 확산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자 “금리의 선도적인 안내 및 자산 구매 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주장. 특히 “2차 팬더믹이 올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채택해 처리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 지수 낙폭 축소 확산. IMF 총재 또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주장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61.21	-0.81	홍콩항셱	24,158.54	-2.06
KOSDAQ	844.44	-1.98	영국	5,832.52	-1.73
DOW	28,494.20	-0.07	독일	12,703.75	-2.49
NASDAQ	11,713.87	-0.47	프랑스	4,837.42	-2.11
S&P 500	3,483.34	-0.15	스페인	6,816.80	-1.44
상하이종합	3,332.18	-0.26	그리스	619.26	-2.14
일본	23,507.23	-0.51	이탈리아	19,065.44	-2.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 반발 매수세 유입

아마존(-0.74%), 애플(-0.40%), 페이스북(-1.88%), 알파벳(-0.51%), MS(-0.54%) 등 대형 기술주는 이벤트 종료, 독점금지법, 옵션 만기일 등으로 매물 출회되며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그 폭이 축소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인 패스틀리(-27.18%)는 틱톡 문제 등으로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했다. 클라우드 플랫폼(-4.42%) 등 클라우드 관련 종목도 동반 하락했다. 바이오 업체인 버텍스(-20.70%)는 단백질 결핍 치료제 테스트 중단 소식으로 급락했다. 경쟁 회사인 애로우헤드(+9.87%)은 급등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1.70%)는 WHO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데 렘데스비르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유나이티드 헬스(+0.85%), 휴마나(+2.92%) 등 헬스케어 업종은 바이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했다. 모건스탠리(+1.34%)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했으며 JP 모건(+1.50%), BOA(+2.24%) 등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웰스파고(-1.29%)는 여전히 부진했다. 월그린부츠(+4.82%)과 찰스 스왑(+5.15%)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아마존이 프라이م데이 매출이 1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월마트(+0.41%), 타겟(+0.91%)은 물론 오토존(+2.07%), 베스트바이(+1.79%) 등 소매 유통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1%	대형 가치주 ETF(IVE)	+0.27%
에너지섹터 ETF(OIH)	+1.19%	중형 가치주 ETF(IWS)	+0.72%
소매업체 ETF(XRT)	+1.50%	소형 가치주 ETF(IWN)	+1.45%
금융섹터 ETF(XLF)	+0.77%	대형 성장주 ETF(VUG)	-0.47%
기술섹터 ETF(XLK)	-0.45%	중형 성장주 ETF(IWP)	-0.0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1%	소형 성장주 ETF(IWO)	+0.62%
인터넷업체 ETF(FDN)	-0.21%	배당주 ETF(DVY)	+0.63%
리츠업체 ETF(XLRE)	+0.4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6%
주택건설업체 ETF(XHB)	+0.7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8%
바이오섹터 ETF(IBB)	-2.27%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72%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13%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0.39%	Long/short ETF(BTAL)	+0.1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4.18	+1.17%	-1.38%	-7.65%
소재	413.80	-0.27%	-0.29%	-1.28%
산업재	684.71	+0.35%	+0.79%	+2.03%
경기소비재	1,270.30	+0.09%	+2.32%	+7.10%
필수소비재	680.54	+0.01%	+1.44%	+3.62%
헬스케어	1,244.88	-0.72%	-0.59%	+1.38%
금융	414.87	+0.81%	-0.95%	+1.33%
IT	2,136.47	-0.44%	+2.62%	+7.02%
커뮤니케이션	200.34	-0.65%	+1.67%	+2.56%
유틸리티	321.78	-0.06%	-0.28%	+7.14%
부동산	224.58	+0.47%	-2.20%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1%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2%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5.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코로나 재 확산이 진행 되고 이로 인해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미 증시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산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의 수출 둔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된 데 이어 라가르드 ECB 총재 또한 적극적인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06% 상승한 점, 장중 낙폭을 키웠던 대형 기술주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한 점도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을 감안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둔화

미국의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84.5 만건)이나 예상(82.5 만건)을 상회한 89.8 만건을 기록해 지난 8 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 주 평균은 85 만 8,250 건에서 86 만 6,250 건으로 증가했다.

10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5.0)이나 예상(14.5)를 상회한 32.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25.5→42.6)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출하지수(36.6→46.5) 등은 상승했으나 고용지수(15.7→12.7)은 부진했다.

10 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17.0)이나 예상(14.5)를 하회한 10.5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7.1→12.3), 고용지수(2.6→7.2) 등은 상승 했으나 재고지수(-3.6→-14.6)은 하락했다

9 월 미국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고 전년 대비로도 -1.8%를 기록했다.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1%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 브렉시트 협상 불안으로 달러 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재고가 382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해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다는 점이 부각되자 낙폭이 축소되며 0.2% 하락으로 마감했다. 가솔린 재고도 163 만 배럴, 정제유도 725 만 배럴 감소했다. 한편,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 긍정적인 소식도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코로나 2 차 확산 우려가 증가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유로와 파운드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파운드화는 EU 와 무역 회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이어 코로나 관련 경제 봉쇄 확산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도 코로나 재 확산 등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고용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재 확산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므누신과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추가 부양책 기대가 재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장 후반 주식시장이 낙폭을 축소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 0.1%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중국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4% 하락했으나 철근은 0.6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0.96	-0.19	-0.56	Dollar Index	93.814	+0.46	+0.22
브렌트유	43.16	-0.37	-0.42	EUR/USD	1.1708	-0.32	-0.43
금	1,908.90	+0.08	+0.73	USD/JPY	105.43	+0.25	-0.57
은	24.224	-0.70	+1.46	GBP/USD	1.2899	-0.87	-0.30
알루미늄	1,852.00	0.00	+2.63	USD/CHF	0.9144	+0.08	-0.28
전기동	6,749.00	+0.49	+0.99	AUD/USD	0.7093	-0.96	-1.00
아연	2,425.50	+0.35	+2.56	USD/CAD	1.3216	+0.53	+0.15
옥수수	403.75	+1.83	+4.33	USD/BRL	5.6156	+0.41	+0.08
밀	618.25	+3.60	+3.86	USD/CNH	6.7126	+0.03	-0.38
대두	1,062.00	+0.45	+1.34	USD/KRW	1143.20	-0.32	-1.30
커피	109.50	-0.09	-0.68	USD/KRW NDF1M	1145.00	-0.20	-0.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34	+0.83	-5.13	스페인	0.147	+1.30	-5.20
한국	1.472	-4.00	-6.10	포르투갈	0.143	+1.50	-5.50
일본	0.023	-0.90	-1.50	그리스	0.822	+5.70	-6.60
독일	-0.610	-2.90	-8.70	이탈리아	0.695	+3.90	-6.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